

□ 근로자를 위한 性지식(1)



自慰行爲에 관하여

郭 大 熙

醫博·泌尿器科專門醫

오만상을 찡그리고 재채기까지 하면서 변소같은데 숨어서 틈에이저들이 쓰디 쓴 담배를 배우느라고 고역을 치르는 모습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일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스터베이션(自慰行爲)도 성적인 본능에다 섹스에 대한 호기심이 플러스되어 빠져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자위도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성에 관한 지식이 무식, 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즉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랫동안 유교 도학자들이 통치해 온 이 땅에서는 마스터베이션이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거나, 자연의 순리에 거역하는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행위로 낙인이 찍혀 엄격하게 금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 때는 그 행위가 神은 물론 자기자신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뜻에서 자독(自瀆)이란 표현까지 쓰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성해방풍조를 타고 죄악시하는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마스터베이션을 해방하라고 격분까지 하면서 자위의 무해론(無害論)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술 더 떠서 스웨덴의 급진파 학자들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까지 안겨주며 뒷맛이 개운치않은 인공감미료같은 자위보다 설탕처럼 제맛이 나는 성교가 보다 건강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혼전성교(婚前性交)를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어느 법관은 독신자들의 성교가 사생아 생산과 성병만연의 원인이 되므로 독신자들은 정상적인 성교보다 자위를 즐기는 편이 바람직하다면서 오히려 마스터베이션을 장려하고 있어 마스터베이션 애호가(愛護家)들의 판단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어찌 되었건 현재 자위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가 모든 남성의 92%나 된다는 놀라운 보고는 자위의 유해성 여부에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적당한 자위는 생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며 능률의 증진과 에너지의 순환을 돕는다. 그것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정계(精系)의 신진대사 현상 때문이다.

즉 「새 술은 새부대에」란 말처럼 정계는 항상 새로 생산된 정액을 받아 들이기 위해 낡은 정액을 쏟아버릴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래야만 교환으로부터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고취하고 정충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은 근조직의 활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근육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에너지의 순환에 해롭다는 설명이 된다.

그러나 자위행위도 「적당히」라는 단서를 붙여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쳐 너무 탐닉하는 것은 해롭기 때문이다. 너무 빈번한 마스터베이션으로 사정관에 긴장수축이 지나치게 되면 팔약근에 고장이 생겨 정액 사정을 오르가즘 문턱까지 참고 견디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빨리 사정해 버리는 조루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책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 외에 성신경 쇠약으로 성교무능에 빠질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애호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론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바이다. ●